

지형창조 거인설화의 성격과 본질

권태호*

- I. 머리말
- II. 지형형성의 신화적 구현 양상
- III. 우리 지형창조신화의 성격과 본질
- IV. 마무리
- V.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은 우리의 지형창조 거인설화에 대해 연구가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하고자 마련한 글이다. 지금까지 우리 거인설화 자료를 파악함에 있어 우주기원은 창세신의 창조작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지형창조는 설문 대할망이나 마고할미 등 별개의 거인신이 있어 그 작업을 완성하는 것으로 파악해왔다. 하지만 외국의 창조신화 사례를 보면 지형창조 거인설화가 우주기원신화의 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의 경우 또한 우주창조 작업과 연계되어 지형창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전승되는 우주창조 작업과 연계 양상을 보이는 지형창조신화 자료들을 모아 사체화생형과 우주정돈형으로 구분 정리하였다. 이 중 사체화생형의 자료는 우리 지형창조신화에는 나타나지 않기에 <중부묘죽고>와 <리어터이> 등 우주정돈형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지형창조신화를 이해하는데 바탕으로 삼았다.

*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특히 1)우리의 우주창조 거인신에게 지형창조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가? 2)우리의 지형형성 거인신들에게 우주창조의 면모는 있는가? 하는 두 가지 의문을 중심으로 <천지왕본풀이>, <설문대할망>, <옥계천의 진주석> 등을 자료 양상을 따져 첫째, 창세신 스스로 우주창조 작업 일환으로 지형창조 행위까지 수행했으나 그 부분이 약화 또는 탈락되었을 가능성, 둘째, 설문대할망과 같은 거인 신격 스스로가 우주창조신의 역할까지를 수행했으나 후대로 전승되면서 변모되어 <설문대할망> 자료와 같이 지역적으로 한정시키고 지형형성에 초점을 맞추는 형태로 변형되었을 가능성, 셋째, 본래 우주창조작업을 총괄하던 창조신 부분은 탈락된 채 창세신을 돕는 부신적 성격의 존재에 의한 지형창조만 남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거인설화, 지형창조신화, 사체화생형, 우주정돈형, 설문대할망

I. 머리말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거인설화들이 전승되고 있다.¹⁾ 그 형태나 성격도 다양하여 천지 분리나 일월조정 등 우주창조신화 성격을 보이는 거

1) 우리의 거인설화는 장주근이 제주도 설문대할망설화를 살피면서 선편을 잡은 이래 여성거인설화를 중심으로 많은 성과가 집적되어 왔다. 주요 성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임동권, 『선문대할망설화고』, 『한국민속논고』, 집문당, 1984. 김영경, 「거인형 설화의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0. 강진옥, 「<마고할미>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25, 한국민속학회, 1993. 김인희, 「거녀설화의 구조와 기능」, 중앙대 석사논문, 1994. 권태효, 『한국의 거인설화』, 역락, 2002. 송화섭, 「한국의 마고할미 고찰」, 『역사민속학』17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7. 권태효, 「여성거인설화의 자료 존재양상과 성격」, 『탐라문화』37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0. 8. 허남춘, 「설문대할망과 여성신화」, 『탐라문화』42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3. 2. 조현설, 『마고할미 신화연구』, 민속원, 2013. 김혜정, 「한국 마고의 전승 양상과 신적 성격」,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13. 12.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인 자료를 비롯해서 지형 형성을 수행하는 거인, 거근이나 배설을 강조하는 형태로 희화화된 거인, 악신화(惡神化)된 모습을 보이는 거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자료 존재양상을 보여준다.²⁾ 이런 거인설화 자료 양상에서 신화적 성격으로 가장 중요한 면은 곧 우주를 창조하는 것과 지형을 형성시키는 것일텐데, 이런 두 가지 작업에 대한 창조의 주체가 연속선상에 있기보다는 별개의 신격에 의한 것으로 구분된 성격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곧 창세신화에서 천지분리나 일월조정을 하는 미륵 또는 대·소별왕과 같은 우주창조적 행위의 신격과 지형을 형성시키는 마고할미나 설문대할망은 전승 형태도 차이가 있고 내용도 연계선상에 있기보다는 단절된 양상을 보여준다. 때문에 우리 거인설화는 우주창조와 지형 형성이 다른 신격에 의해 별개로 작업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임이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었다.³⁾ 실상 거인설화 자료를 살펴볼 때 이 점은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 세계 곳곳에 전승되는 창조신화를 볼 때 거인신적 면모를 보이는 창세신이 세상을 창조하는 과정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주창조와 지형형성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양상은 대체로 두 가지 형태로 정리되는데, 첫째는 창조거인신의 사체로부터 우주창조 및 지형형성이 함께 이루어지는 자료 형태가 있으며, 둘째는 창조신격의 우주창조 연장선상에서 지형형성 작업이 수행되는 자료 형태가 있다.

그간 우주 창생과 연결되어 지형창조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외국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면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 우리 거인설화를 이해하는 기반으로 삼지 못했던 점은 분명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⁴⁾ 아울러 최근 중국소수민족 신화를 비롯해 여러 창세신화 사례가 소개되면서 지형 형성이 우주창조 작업의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어 이들 자료를 참고하면

2) 권태효, 『한국의 거인설화』, 역락, 2002.

3) 위의 책, 231쪽.

4) 최근에 허남춘에 의해 설문대할망의 지형창조를 천지창조신화와 관련지어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루어진 바 있었다.(허남춘, 앞의 글)

서 우리의 우주창조 및 지형형성 관련 거인설화를 이해하는 기반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시각에서 이 글에서는 먼저 세계 곳곳에 전승되고 있는 창조신화 자료에서 우주창조와 지형형성이 어떻게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필 것이다. 특히 중국 소수민족의 창세신화 자료들 특히 묘족과 이족 등의 자료를 보면 창세과정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지형형성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런 자료들을 새로 찾아 제시하면서 그 양상을 정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자료를 이해하는데 기초로 삼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런 세계 곳곳에서 전승되는 이러한 창조신화의 존재 양상을 참고삼으면서 우주창조와 지형형성이 분리된 형태를 보이는 우리 자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우주창조 행위의 성격과 지형형성의 성격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 설정을 어떻게 파악하는 것이 적절할지도 살펴 보도록 하겠다.

II. 지형형성의 신화적 구현 양상

창조신화에는 우주 창조와 신의 창조, 인간의 창조 등이 핵심이 되는데,⁵⁾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주창생이라고 할 수 있다. 태초의 혼돈으로부터 하늘과 땅을 분리시키고 일월을 만드는 등 우주가 제자리를 잡도록 하는 과정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런 작업과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형을 형성시키는 부분이다. 우주창조의 과정에서 지형 형성이 드러나는 자료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우주창조의 과정에서 창조거인신이 스스로 죽거나 신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그 사체(死體)로부터 지형 형성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중국신화의 반고를 비롯해 인도신화의 푸루샤, 북유럽신화의 이미르, 남미 아즈텍신화 등 폭넓은 지역에서 이런 신화

5) 김현선, 「창조신화 연구서설」, 『세계의 창조신화』, 동방미디어, 2001, 18-22쪽.

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창조거인신이 천지분리를 비롯한 우주창조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창조작업의 일환으로 지형을 창조하는 형태이다. 이런 형태의 자료 또한 묘족(苗族), 이족(彝族) 등 중국 소수민족의 창세서사시를 비롯해 필리핀 부깃논(Bukidnon) 창조신화, 나이 지리아 베냉 오루바족의 창조신화 등 곳곳에서 그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 우주창생과 더불어 지형형성이 연계되어 나타나는 자료들의 양상을 제시하면서 그 성격과 특징부터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1. 사체화생형(死體化生型)⁶⁾ 지형창조

사체화생형 지형창조란 우주창생 과정에서 창조신 스스로 또는 창조신에 의해 죽임을 당한 거인신격의 사체로부터 해와 달, 별 등과 같은 천체와 산과 강, 들 등 이 세상의 지형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의 창조신화 형태이다. 이런 양상을 보이는 자료는 중국, 인도, 북유럽, 남미 등 지역적으로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사체화생형 우주기원신화를 간략하게 요약 제시하며 그 속에 지형이 형성되는 양상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가) 중국의 우주창조신화 : 반고는 혼돈 속의 알 속에서 일만팔천 년을 잠잔 후, 큰 도끼로 혼돈을 향해 휘둘러, 가벼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게 하고 무거운 기운은 가라앉아 땅이 되도록 했다. 반고는 하늘과 땅이 다시 붙을까 걱정이 되어 머리로 하늘을 받치고 다리로 땅을 눌렀다. 키가 하루 한 길씩 자라 일만팔천 년이 지나자 구만 길이나 되어 하늘과 땅이 다시 합쳐지지 못했다. 그 후 반고는 쓰러져 죽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숨결은 바람과 구름이 되었고, 목소리는 천둥, 왼쪽 눈은 태양, 오른쪽 눈은 달로 변하였다. 손과 발, 몸은 산이 되었고, 피는 강물, 핏줄은 길, 살은 밭, 머리카락과 수염은 별, 피부와 털은 화초와 나무로 변했다. 이, 뼈, 골수 등은 금속과 돌, 진주, 옥 등으로 변하였고, 땀은 이슬과 빗물이 되었다.⁷⁾

6) 사체화생이란 용어는 오바야시카[大林太良]가 『신화학입문』에서 사용한 것으로, 크게 무리가 없어 그대로 활용한다.(大林太良, 권태효 역, 『신화학입문』, 새문사, 98쪽)

7) 袁珂, 전인초 의 역, 『중국신화전설』 I, 민음사, 1992. 154~155쪽.

나) 인도의 우주창조신화 : 태초에 푸르샤라는 거인이 있었는데 신들이 희생으로 삼아 죽였는데, 머리는 천공이 되고, 양쪽 다리는 대지, 눈은 태양, 마음은 달, 숨결은 바람이 되었다. 그리고 푸르샤를 분할했을 때 이에서는 바라문, 양쪽 팔에서는 크샤트리야, 넓적다리에서는 바이샤, 양 발에서는 수드라가 생겨났다.⁸⁾

다) 북유럽의 우주창조신화 : 서리와 얼음의 나라 니블하임(Niflheim)의 얼음이 응고되어 만들어진 서리 거인 이미르가 아우둠라(Audhumla) 암소의 젖을 먹고 잠을 자며 거인들을 생겨나게 했다. 오딘과 그 둘이 이미르를 죽이자 피는 빠져나가 바다가 되었고 몸은 굳어 대지가 되었으며, 뼈는 산과 낭떠러지, 작은 뼈와 이빨은 돌덩이, 머리카락과 털은 나무와 숲, 두개골로는 천공, 뇌수는 공중에 던져 구름을 만들었다.⁹⁾

라) 인도 앓삼 아파타니족 우주기원신화 : 최초의 신 크쭈·찬도는 인간을 닮아서 머리와 팔, 다리를 가지고 있었고, 거대한 올챙이배를 하고 있었다. 태초에는 인류가 그녀의 배 표면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크쭈·찬도는 만약 내가 서 걷게 된다면 모두 다 떨어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살을 하였다. 그러자 그녀의 머리는 눈 덮인 산이 되었고, 등뼈는 자그마한 언덕이 되었다. 가슴은 계곡이 되어 아파타니족이 살게 되었으며, 목은 타긴족이 사는 북쪽의 나라가 되었고, 엉덩이는 앓삼평원이 되었다. 그래서 앓삼은 엉덩이가 지방질로 가득 차 있듯이 비옥한 토양을 갖게 되었다. 크쭈·찬도의 눈은 태양과 달이 되었으며, 그녀의 입에서 크쭈·포피신이 태어나 태양과 달을 하늘로 올려보내 세상을 밝게 비추도록 하였다.¹⁰⁾

마) 메소포타미아의 아카드지역 우주기원신화 : 태초에는 대양인 아프스와 파도를 일으키는 바다 티아마트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 물이 서로 섞여졌을 때 거기에서 처음으로 몸무(바다의 출렁거림)가 생겨났고, 그 다음으로 거대한 뱀의 부부인 라혹과 라함이 생겼다. 그들은 안사르(天空의 세계)와 키샤르(지상의 세계)를 탄생시켰고, 이들로부터 강한 기질을 지닌 아누와 엄청난 지식을 가진 벨·마르토크, 에아 등의 신들이 태어났다. 현자(賢者)인 마르토크는 원래의 바다인 티아마트를 죽였고, 그 사체를 물고기를 가르듯 둘로 잘라 반쪽으로는 활처럼 휘게 하여 하늘을 만들고, 다른 반쪽으로는 대지의 지주(支柱)를 만들었다. 그 일을 마치자 마르토크는 하늘에 위대한 신들의 거처를 만들고 별을 장식하였으며, 세월을 정하여 별의 운행을 규정하였다. 하늘의 질서를 확립하자 마르토크는 그 때까지 완전히 잠겨있던 대지를 헤쳐로부터 떠오르게 하였다.¹¹⁾

8) 김형준, 『인도신화』, 청아출판사, 1994. 18-19쪽.

9) 안인희, 『북유럽신화1』, 웅진지식하우스, 2007. 18-21쪽.

10) 大林太良, 앞의 책, 2003. 85쪽.

바) 멕시코 아즈텍의 우주기원신화 : 창조신의 아들인 테스카틀리포카와 케찰코아틀이 창조행위를 완성하고자 거대한 뱀으로 변하여 지상에 살고 있던 거대한 괴물인 틀랄테쿠틀리(Tlaltecuhli)를 죽인다. 뱀으로 변한 두 신은 각기 괴물을 두 조각으로 찢어 반으로는 대지가 되게 하고 나머지 반으로는 하늘을 만든다. 이에 다른 신들이 잔인하게 살해된 틀랄테쿠틀리를 안타까워하며, 그 털은 나무와 꽃, 향료식물이 되게 하고, 가죽으로는 풀과 작은 꽃이 되게 했고, 눈은 우물과 샘, 작은 동굴이 되게 했으며, 입은 큰 강과 큰 동굴을, 그리고 코는 산 등성이와 계곡이 되게 했다.¹²⁾

최초로 세상이 형성됨에 있어 창조거인신의 사체로부터 우주가 기원하고 그 과정 속에서 지형이 생겨난다고 하는 자료는 이렇듯 세계 곳곳에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 이들 자료에서 볼 수 있는 사체화생형 지형창조의 양상과 특징을 정리해보도록 한다.

첫째, 지형창조가 우주창조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양상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창조신이 거인적 존재를 죽여 그것으로부터 창조작업이 이루어지든지, 그렇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죽어 창조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우주창조와 지형 형성은 별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료 가)와 라)는 거인신 스스로가 죽어 우주창조작업이 완성되는 형태이고, 나), 다), 마), 바)는 창조신에 의해 거인적 존재가 죽임을 당해 그것으로부터 우주가 생성되는 형태인데, 양자 모두 지형창조 작업이 우주창조 과정의 한 부분일 뿐 서로 분리되어 인식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전체적인 내용 구성은 원초적인 혼돈 또는 원수(原水)로부터 세상을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해, 주된 구성 요소는 하늘과 땅의 조성 또는 분리, 해와 달, 별 등 천체의 형성, 바람, 구름, 천둥 등 자연현상의 생성, 산과 강, 바다, 계곡, 평원 등 지형의 창조 등이다. 곧 지형 형성을 포함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 현상들이 사체로부터 생겨나 차례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을 잘 제시하고 있다.

셋째, 창조거인신의 사체로부터 우주가 창조됨에 있어 그 신체의 형상을 그대로 반영하여 창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거대한 동

11) 위의 책, 85쪽.

12) Karl A. toubc, 이용균 외 역, 『아즈텍과 마야신화』, 범우사, 1998. 80-82쪽.

물의 신체를 반으로 나눠 하늘과 땅을 만든다거나, 두 눈이 해와 달, 피가 바다 또는 강물, 뼈가 산, 몸이나 엉덩이가 평원이 된다는 형태로 신체의 생김새를 형상화시켜 우주 및 지형의 생성과 연관짓고 있는 것이다. 소박한 신화적 상상력의 발현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듯 우주창조 작업과정의 하나로 지형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주창조와 지형창조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인식이 뚜렷하다. 우리 자료의 경우 창세신화에서는 천지분리와 일월조정 등 우주창조의 과정만으로 구성되고, 지형창조는 별개의 거인신격에 의해서 별도의 작업인 듯 나타나는 양상과는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설사 이런 차이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사체화생형 지형창조는 우리의 창세신화나 지형창조 신화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이런 연결성 자체가 우리 신화에는 유효하지 않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우주창조 작업과 연결되어 지형창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가능성을 단아들 필요는 없다. 다음에 살펴볼 우주정돈형 지형창조에서도 우주창조 작업의 일환으로 지형 형성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이것을 우리의 지형이 생겨나는 자료와 관련지어 논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우주정돈형 지형창조

오바야시[大林太良]는 위의 사체화생형 지형 형성을 우주창조 작업의 하나로 파악했다. 실제 우주창조 작업과 연계되어 지형 형성이 이루어지게 타당한 논급이다.¹³⁾ 그런데 중국 소수민족 창세서사시의 사례를 비롯해 세계의 여러 신화에서 우주창조 작업의 일환으로 지형 형성이 창조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곧 창조신들이 하늘과 땅을 분리시킨 뒤 하늘과 땅이 온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작업하는 과정에서 지형을 형성시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천지분리 후 하늘과 땅의 길이를 맞추고 땅을 평평하게 펼치거나 늘이는 등 땅의 크기와 모양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¹⁴⁾ 이런 과정에서 산과 강, 들과

13) 大林太良, 앞의 책, 83-85쪽.

14) 혼돈으로부터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는데 하늘과 땅의 크기가 맞지 않아 그 크기

같은 지형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곧 우주정돈 과정의 일환으로 지형 형성이 이루어지는 양상이다. 이런 자료 모습은 중국 소수민족인 중부 묘족의 창세서사시, 이족의 창세서사시인 『러어티이[勒俄特衣]』, 필리핀 부킷논(Bukidnon) 창조신화, 나이지리아 베냉 오루바족의 창조신화, 북 아메리카 이튀퀴이족 창조신화 등 다양한 자료에서 이런 형상을 보여 주는데, 이 장에서는 지금껏 알려진 바 없고 우주정돈형 지형창조를 온전하게 파악하기에 적절한 <중부묘족 창세서사시>의 지형창조 부분과 <러어티이>의 지형창조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 외의 자료는 다음 장의 우리 지형창조 관련 자료를 살피는 데에서 제시하면서 연계 짓도록 하겠다.

가. 묘족의 창세서사시

나. 이족 창세서사시 <러어티이>¹⁵⁾

가는 《묘족고가》 중 <중부묘족고가>편의 ‘개천벽지(開天辟地)’에 수록된 자료이다. <묘족고가>를 보면 세상의 시작에 거인신들이 등장한다. 창세신 푸방[府方]은 다리 관절이 아홉 개나 있고, 팔이 여덟 쌍이나 있는 거인이다. 그는 물고기 아홉 광주리, 찹쌀떡 아홉 통을 먹는 대식을 하는 존재로 힘이 아주 세서 하나로 붙어있는 하늘과 땅을 갈라놓는다. 하늘을 받치는 기둥이 없어서 하늘과 땅이 흔들릴 때마다 네 명의 거인신인 바오공[寶公]과 숭공[雄公], 채공[且公]과 당공[當公]이 모여 의논하여 금기둥으로 하늘을 받치고 은기둥으로 땅을 받쳐 인간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금과 은으로 태양과 달을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우주창조작업의 일환으로 거인신 양요우[養優]는 산을 만들고 있으며, 머리에 뿔이 있는 거인 슈뉴[修紐]는 강을 만들고 있다.¹⁶⁾ 그 지형창조 해당

를 맞추거나 그런 과정에서 산이나 골짜기와 같은 지형이 생겨났다고 하는 형태의 우주창조신화는 야오족이나 이족 등 중국소수민족의 창세서사시에 흔히 등장하는 모습이다.(김선자, 『중국소수민족 신화기행』, 안티구스, 2009. 432-433쪽)

- 15) 우주 정돈과 지형 형성이 연결되는 중국소수민족의 신화 사례는 장족이나 야오족 등 여러 민족에게서 다양하게 발견되나 묘족 창세서사시와 이족의 <러어티이>가 특히 우주정돈 과정의 일환으로 지형 형성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어 이 두 편을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에야 비로소 산이 있고,
이전에는 산이 없었으니,
누구 능력이 큰가?
누가 산을 만들었는가?
양요우[養優]는 능력이 크니,
양요우가 산을 만드네:
높은 것은 눌러서 낮게 하고,
구부러진 것은 당겨서 곧게 하고,
산꼭대기는 모자와 같고,
산간의 평지는 말안장과 같고,
산허리는 의자와 같고,
산등성이는 손가락과 같고,
산골짜기는 서로 통하여,
굽은 곳도 있고 또 곧은 곳도 있네.

현재에야 비로소 강[江]이 있고,
현재에야 비로소 물[河]이 있어,
이전에는 강이 없고,
이전에는 물이 없어,
누가 강을 만들고?
누가 물을 만들었는가?

슈뉴[修紐]는 힘이 세며,
머리에 빨 한 쌍이 있는데,
한 번 들이받으면 산이 무너지고,
두 번 들이받으면 땅이 꺼지고,
큰물이 세차게 흐르고,
도처에 강이 생겨,
사람들은 상앗대로 배를 저어,
왕래함이 배들의 복과 같고,
입을 것을 찾고 또 먹을 것을 찾아,

생활이 비로소 풍족하게 되었네.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이,
토지를 정리하고,
물길을 다듬고,
평지는 더 채우고,
경사지는 섬돌을 쌓아서,
비로소 땅이 있어 논밭을 만들고,
비로소 토지가 있어서 일을 하고,
비로소 산이 있어 나무를 심고,
푸른 작물이 온 들에 가득하네.

과굉(耙公)은 산을 정비하고,
치오평(秋婆)는 강을 보수하고,
샤오팡(紹公)은 평지를 메우고,
샤오평(紹婆)는 경사지에 섬돌을 쌓아,
비로소 땅이 있어 밭을 만들고,
비로소 토지가 있어서 일을 하고,
비로소 산이 있어 나무를 심고,
푸른 작물 온 들에 가득하네.¹⁷⁾

곧 양요우[養优]와 슈뉴[修紐], 과굉(耙公) 등은¹⁸⁾ 우주창조신들로, 여러 창조 작업을 수행해나가던 중 그 하나로 여러 거인신들이 함께 산과 강 등 지형을 형성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중부 묘족 창세서사시는 지형 형성과 관련해 다음 특징들이 잘 드러난다.

첫째, 중부 묘족 창세서사시 또한 우주창조 작업의 일환으로 지형을 형성시키는 성격이 분명하다. 지형창조는 우주창조 작업과 별개가 아니라 그 과정의 하나이다. 양요우나 슈뉴 등 거인신의 별도 행위로 지형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완성시켜가는 여러 단계별 과정 중의 하나이며, 창조신의 계획에 따른 거인신의 창조 작업으로 나타난다. 특히

17) 潘定智 편, <中部苗族古歌>, 『苗族古歌』, 貴州人民出版社, 1997.

18) 이들 신들에 대해서는 전설 속의 거인신이라는 주석이 붙어있다.

이런 지형 형성은 하늘과 땅을 분리한 뒤 하늘과 땅의 창조를 완성시키는 정리 작업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여러 거인신들이 각기 역할을 분담해 지형을 창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산을 만드는 신은 양요우이고, 강을 만드는 신은 슈뉴이며, 산이나 강, 평지를 메우고 보수하는 등의 작업은 파공 등이 각기 맡아 세상 지형이 온전히 자리잡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형 형성이 복수의 거인신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창조거인신의 뜻을 여타 거인신들이 도와 지형을 형성시키는 양상이다.

셋째, 지형창조 신화가 거인신격이 태초에 막연히 또는 우연히 산과 강을 형성시켰다고 설정하기보다는 산, 강, 토지, 밭 등 생활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지형을 형성시키는 양상을 보여준다. 곧 지형 형성이 우연보다는 필요에 따른 구체적인 형상을 지닌 형태로 창조되는 면모를 보여주며, 이 점은 원초적인 지형창조 신화적 모습을 탈피해 보다 다듬어지고 정리된 신화적 구상을 바탕으로 전개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것은 지형 형성이 우주창조 작업 전체 속에서 부분적으로 독립적인 면모를 보이며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넷째, 그렇기에 지형형성이 문화 창조와 연계성 속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산과 강, 평지를 정비하고 보수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작물을 거둘 수 있으며, 땀감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등 우주창조 과정이면서 인간들이 오늘날과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둔 지형 형성인 것이다. 오랜 기간 전승되면서 신화를 다듬은 까닭으로 인해 나타난 양상으로 보이나 어떻게 지형의 형성이 문화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고 하는 신화적 인식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뒷부분에는 불의 발견이라는 창세신화소가 이어지고 있어 우주창조를 문화창조로까지 연결시키려고 하는 의식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성격과 특징들은 나의 『러어터이[勒俄特衣]』 자료와도 연결된다. 자료 나는 스촨성[四川省] 량산[涼山]지역에 거주하는 이족의 창세서사시로 이 자료의 지형창조의 양상 또한 가)의 묘족 창세서사시와 궤를 같이 한다.

하늘과 땅을 개벽시키는 일은
 씨이디니[司惹低尼]가 맡아서 하였다.
 땅을 평평하게 정돈하는 일은
 씨이위에주[司惹約祖]가 맡아서 하였다.
 언티구쯔[恩体谷自]가
 특별히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아얼[阿爾] 선생을 청하여
 동철도끼 아홉 자루를 주조하여
 아홉 명의 젊은 신선에게 건네
 위에주[約祖]를 따라 땅을 만들었다.
 씨이위에주[司惹約祖]는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일로
 오전에는 너 먼저 나 먼저 서로 다투어 말하였고
 오후에는 ‘내가 해라’ ‘내가 한다’ 하며 다투었다.
 높은 산을 만나면 쪼개고
 깊은 계곡을 만나면 처냈다.
 한 곳에 산을 만들어
 양 기를 땅을 만든다.
 한 곳에 독을 만들어
 소 기를 곳을 만든다.
 한 곳에 평원을 만들어
 모 심을 곳을 만든다.
 한 곳에 언덕을 만들어
 메밀 심을 곳을 만든다.
 한 곳에 좁은 골짜기를 만들어
 싸우는 곳으로 만든다.
 한 곳에 물 흐르는 계곡을 만들어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든다.
 한 곳에 산비탈을 만들어
 집 지을 곳을 만든다.¹⁹⁾

<러어터이>의 이런 지형창조 또한 우주창조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

19) 馮元蔚 외, 『涼山彝文資料選輯(1) - 勒俄特衣』, 西南民族學院, 1978, 13-15쪽.

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늘과 땅을 개벽시키는 일은 씨이디니 [司惹低尼]가 맡아서 하였다고 하며, 땅을 평평하게 정돈하는 일은 씨이 위에주[司惹約祖]가 맡아서 했다고 한다. 곧 지형 창조는 우주창생의 한 과정으로 특히 분리된 땅이 자리 잡도록 정돈하는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세상이 처음 창조되는 과정에서 땅을 바로 잡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런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연적으로 지형 형성이 수반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자료 나) 또한 거인신격이 태초에 막연히 산과 강을 어떻게 형성시켰다고 하는 식의 지형 형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산, 비탈, 언덕, 평지, 도랑, 논이나 밭이 될 곳 등 그 지형의 쓰임새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지형을 형성시키는 양상을 보여준다. 곧 지형 형성이 우연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형태의 지형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자료 가)와 상통하는 양상이며, 생활공간을 염두에 둔 채 지형 형성에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렇기에 자료 나)도 지형 형성이 문화 창조와 연계성 속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곧 논과 밭을 일구는 지형을 별도로 만들고, 목축을 위한 지형을 별도로 만들며, 관개시설을 위한 지형을 별도로 만드는 등 문화적인 기반을 토대로 지형 형성이 이루어지는 면모이다. 후대로 전승되면서 지형창조신화가 다듬어지고 정리된 데 따른 신화적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 <중부묘족고>와 <리어터이> 등 두 중국소수민족의 창세서사시 자료에 나타난 지형창조 부분을 살펴보았다. 이들 두 자료에서는 무엇보다도 우주창조 작업의 일환으로 지형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앞서 살핀 사체화생형 지형창조뿐만 아니라 창조 신들에 의해 천지가 분리되고, 그 하늘과 땅이 고정되며, 그것과 연계해 또는 그 후속작업으로 지형을 형성시키는 우주정돈형 지형창조에서도 역시 지형창조는 우주창생작업의 한 과정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족과 묘족의 중국소수민족 창세서사시에서는 우주창조 작업과 관련해 여러 신들이 지형을 창조하는데, 이와 같은 우주정돈형 지형창조의 자료 양상은 우리의 지형창조신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된다. 곧 사체화생형 지형창조의 자료는 우리 신화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우주정

돈형 지형창조의 자료 양상은 천지분리, 일월조정 등 여러 부분 우리의 창세신화에서 그 면모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의 창세신화에서는 지형창조가 없는 채로 우주창조의 신화적 면모만 나타나고, 지형 형성은 별도의 거인에 의한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들 자료가 결합된다면 곧 우주정돈형 지형창조의 자료 양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체화생형 지형창조와 우주정돈형 지형창조 등의 신화적 면모를 참고로 삼아서 우주창조 작업과 별개로 지형창조가 진행되는 우리 신화 자료 또한 그 연계선상에서 파악할 가능성이 없는지를 다음 장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Ⅲ. 우리 지형창조신화의 성격과 본질

우리나라 우주창조신화에 해당하는 창세신화에서는 지형 형성 부분이 포함되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함경도의 <창세가>나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 등과 같은 자료에서 창세신이 이 세상의 산, 강, 들, 바다와 같은 지형을 형성시켰다고 하는 대목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료에서 보이는 지형창조 양상을 단순히 창조신의 우주창조 행위와는 무관한 별개의 거인신 행위로만 파악하고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적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문제를 정리하면서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가. 우주창조의 거인신에게 지형창조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가?
- 나. 지형형성의 거인신들에게 우주창조의 면모는 있는가?

가)의 문제는 앞서 살폈듯이 세계 여러 신화 사례를 볼 때 우주창조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또는 우주창조 작업의 일환으로 지형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에 제기되는 의문이다. 우주창조 과정에서 지형 형성이 이루어지는 자료가 사체화생형과 우주정돈형의 두 가지 형태라고 했는데, 이 중 전자의 모습은 우리 자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기에 주로 관

런지어 살필 것은 우주정돈형 지형 형성의 모습을 보이는 자료이다.

우주정돈형 지형 형성의 자료에서 창조주와 그를 돕는 여러 신들이 주로 수행하는 작업은 하늘과 땅의 분리, 하늘과 땅이 다시 합쳐지지 않도록 떠받치는 과정, 해와 달, 별 등 천체 형성, 하늘과 땅의 크기를 조정하거나 평평하게 펴는 작업, 산과 강, 바다, 들 등 이 세상의 지형을 형성시키는 작업 등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료 중 이런 작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있는가? <창세가>와 <천지왕본풀이> 등 우리의 창세신화에서 이런 모습들이 내포되어 있다. <창세가>에서는 하늘과 땅의 분리, 네 모퉁이에 구리기둥을 세워 하늘과 땅이 다시 합쳐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작업, 일월조정 및 별의 생성 등의 화소가 잘 나타나고 있으며, 진성기 채록의 <천지왕본풀이>와 같은 자료를 보면 도수문장이 천지를 분리시키고 일월이 생겨나는 과정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창조행위를 하는 데서 창조 거인신격에 의한 지형창조 부분만이 빠져있다. 곧 우주정돈형 지형 형성의 자료들에서 우주창조 작업의 일환으로 산과 들, 강 등을 만드는 지형 창조행위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창세신화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여타 세계 신화 사례를 대비해 본다면 우리의 창세신화에서 지형 형성 부분이 약화 또는 탈락되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그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자료가 고창학 구연본의 <초감제>이다.

육황이 도수문장 굽어보니
 하늘과 땅이
 너귀 줍쑥 떡장굴이 늘어,
 너귀가 함수하니
 혼합으로 제이르자,
 천지개백 도업으로
 제이르자,
 도수문장이 훔 손으로
 하늘을 치받고
 또 훔 손으로 지하를 짓 놀러,
 하늘 머린
 건술 건방 주방으로 도업하고

땅의 머린
축방으로 열립네다.
동의 머린 서의 출리
서의 머린 동의 출리,
천팔복이 건설 건방
제동방이 수성개문 열립네다.
이 하늘광 땅 스이에는
산도 굽이 납네다.
물도 굽이 납네다.
산 밀디는 물이 나고
물 밀디는 물이 나고,
산광 물이 굽우다.
산중에는 천하맹산
골용산이우다.
물중에는 황화수가
위주우다.
이 하늘은
잉우이도 삼하늘
밭 우이도 삼하늘
지하 우이 삼하늘
삼십삼천 실은 시 하늘이우다.
이 하늘은
청청 붉은 하늘이우다.
땅은 백사지 땅이우다.
밤도 왯왯 일목궁이
시절이우다.
제토성이 었던 하늘이우다.
해광 들이 었던 하늘이우다.
제토성이 솟아나대 동이 가난
동산 새멜 부품네다.
서이 가난
백토성이 부품네다.
남방이 노인성이 부품네다.
복이 가난
복두칠성 부품네다.²⁰⁾

이 자료에서 보면 우주창조신화의 일부로 지형이 창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위의 <초감제>는 도수문장에 의해 하늘과 땅이 분리되고 하늘이 열리며, 그 사이에 산과 물 등이 생겨나 자리잡는 과정이 들어있다. 그 뒤를 이어 삼하늘 삼십삼천 하늘이 마련되고, 해와 달, 별들이 차례로 생겨나는 과정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 보듯 천지분리, 지형 형성, 천체의 생성 등 우주창조신화로서의 신화소를 잘 갖추고 있다. 다만 창조행위의 주체는 불분명하다. 도수문장이 한 손으로 하늘을 치받고 지하를 짓눌러 천지를 분리시키고 뒷부분에서는 복수의 해와 달을 제치하는 모습으로 창조거인신적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지만 이런 지형 형성이 곧 도수문장에 의한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초감제> 자료는 우리의 우주창조신화에 지형창조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는 자료로서 의미와 가치가 있다.

다음으로 나)의 문제는 우리의 지형 형성 자료가 우주창조 작업과는 별개로 주로 여성거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데서 제기되는 의문이다.²¹⁾ 지형 형성을 담당하는 여성거인 즉 설문대할망이나 마고할미 등과 같은 창조거인신의 행위에서 우주창조의 형상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제주도 설문대할망의 자료 경우는 할망이 천지개벽시 하늘과 땅을 분리시키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제주도라는 섬을 만드는 지형 형성 작업을 수행하는 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설문대할망>이라고 하는 제주도에서 채록된 다음 자료는 설문대할망의 우주창조신으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 진성기, <초감제>,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55쪽. 최근 현승환이 「설문대할망 설화 재고」(『영주어문』 24, 영주어문학회, 2012)에서 진성기 채록 <설문대할망자료>가 출간판본을 달리하면서 내용이 바뀌어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음을 제기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 인용한 <초감제>자료는 제보자와 채록시기도 온전히 밝힌 무가 자료이고, 『남국의 무가』(1968)는 이후 판형이 바뀌어 재출간되었지만 바뀐 부분이 없어 일단 이 자료까지 신빙성을 의심할 단계는 아니다.

21)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허남춘도 일본 『세계신화사전』의 ‘천지창조신화’ 항목에 천지분리, 복수의 해와 달 정리, 국토 생성 등 세 가지를 들고 있다면서 특히 ‘국토 생성’에 중점을 두면서 설문대할망설화가 천지창조 신화의 파편화된 설화 형태로 보고 있다.(허남춘, 앞의 글, 106-111쪽)

하늘광 땅이 부뻗는다 천지개벽할 때 아미영호여도(아무리하여도) 열린 사름이 이설 거라 말어우다. 그 열린 사름이 누구게 열렸느냐 하민 이주 키 크고 센 사름이 딱 떼어서 하늘은 우테로(위로) 가게 호고 땅을 밋트로(밑으로) 호여서 호고 보니 여기 물바다로 살수가 읍으니 곳드로(가로) 돌아가명 호 파 올려서 제주도를 맨들었다...²²⁾

천지개벽시에 하늘과 땅이 서로 붙어있었는데, 설문대할망이 천지를 분리시켜 하늘을 위로 가도록 하고 땅은 아래로 가도록 한 뒤,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물속에서 흙을 파올려 제주도를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여기서 보면 설문대할망은 단순히 제주도를 형성시킨 여성거인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원초적인 창조 작업의 주인공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맡고 있다.²³⁾

위의 <설문대할망>에서는 창조거인신으로서 설문대할망의 중요 행위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태초에 붙어있던 천지를 분리시키는 존재로서 우주창조신적 성격을 지닌다. 이런 모습은 하늘과 땅을 벌리고 네 모퉁이에 구리기둥을 박아 다시 합쳐지지 못하도록 한 창세 거인신 미륵의 행위나 한손으로 하늘을 받치고 또 한 손으로는 지하를 눌러 하늘과 땅을 분리시키는 도수문장의 행위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임을 알 수 있다. 곧 위의 <설문대할망> 자료는 여타 여성거인설화에서 보여주는 특정 지형을 형성시키는 신으로서의 한정된 기능이 아닌 그 이상의 우주창조신적 면모를 잘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둘째는 여타 여성거인설화처럼 설문대할망은 지형을 형성시키는 거인으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이 자료에서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제주도라는 섬을 만들었다고 하였지만 이는 단지 제주도 지형을 형성시킨 것에 한정된 것은 아닐 것이며, 이 세상의 지형을 형성시키던 모습을 제

22) <설문대할망>, 『한국구비문학대계』9-2(제주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712 쪽. 위의 <설문대할망> 자료는 여타 자료와 달리 내용상 다소 특이한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전국적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구비문학대계』9-2에 실려 있는 자료이며, 김영돈 선생이 직접 조사하면서 조사과정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 제시하고 있기에 자료의 신빙성에는 문제가 없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3) 권태호, 「여성거인설화의 자료 존재양상과 성격」, 『탐라문화』 37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2.

주도라는 지역에 초점을 맞춰 한정하여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제주도 지역에서 전승되기에 제주섬이라고 한정을 지은 것일 뿐 태초에 이 세상의 땅덩어리를 만들었던 창조신으로서의 면모에 다름 아니다. 이렇듯 설문대할망은 천지를 분리시키고 제주도를 비롯한 이 세상의 지형을 새로 창조하는 창조여신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는데, 이것은 앞 장에서 살폈던 우주정돈형 지형 형성의 자료에서 볼 수 있었던 신화적 성격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남는 문제가 있다. <설문대할망>처럼 우주창조신적 면모를 보이는 거인설화 자료들이 아주 드물다는 사실이다. 실상 지형을 창조하는 여성거인신격의 행위는 이 세상의 산과 들, 강과 같은 지형을 형성시키거나 특정 지역의 산이나 섬을 만드는 것처럼 지형을 형성시키는 행위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위의 <설문대할망>과 같은 자료는 아주 중요한 신화적 성격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을 형성시키는 거인신격이 우주창조 작업까지 수행하는 존재로서 일반화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인 것이다.

한편 이런 양상과 관련해 단편적이거나 주목되는 육지의 창조신화 성격의 자료들도 있다. 손진태가 1923년 칠곡에서 채록한 <인간과 생물의 창생>이라는 설화에서 보면 “개벽 당시는 하늘과 땅이 서로 붙어 있었다. 그 후에 하늘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고 땅은 하늘의 압력으로 평평하게 되었다. 그 뒤 땅위에서는 첫 번째로 인간이 태어났다. ...”²⁴⁾라는 내용이 있다. 원초적인 천지혼돈 상태에서 세상이 창조되면서 하늘, 땅, 인간이 차례로 생성되는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거인신격에 의한 우주형성 및 지형창조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과정 곧 혼돈으로부터 우주가 정리된 뒤 차례로 하늘과 땅이 생성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식상 상통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외에 육지의 지형창조 여성거인설화 자료들 또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그 관련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특히 육지의 마고할미설화에서 잘 나타나는 양상으로, 곧 지형을 창조하는 마고할미의 설화들에서 보면 마

24) 손진태, 김현선 외 역, 『한국 민화에 대하여』, 역락, 2000, 17쪽.

고할미는 창조신을 명을 받거나 창조신을 도와서 특정 지형을 형성시키는 존재로서의 성격과 역할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마고할미가 지형을 창조함에 있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지형창조 작업이 이루어지는 자료가 있는가 하면 조물주의 명을 받아 지형창조 행위를 수행하는 모습의 자료들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옥계천의 진주석>²⁵⁾과 같은 설화에서 보면 조물주의 명에 의해 선경(仙境)을 만들기 위해 돌을 옮기다가 결국 실패하고 창조행위를 온전히 완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성격의 자료에서 주목할 부분은 마고할미 스스로가 지형창조의 주체이기보다는 창조신은 별도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를 도와 지형을 창조하는 작업만을 수행하는 조력자로서의 기능을 맡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앞에서 살핀 <중부묘족고가>나 <리어티>와 같은 우주정돈형 지형창조 자료에 비춰본다면 창조신과 그를 돕는 여러 조력자 역할의 신들에 의해 우주창조 작업이 이루어지며,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지형을 형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과 일정한 연관성을 지을 수 있다. 곧 이들 중국소수민족 창세서사시에서는 창조신과 함께 또는 창조신을 도와 우주창조 작업의 한 과정으로서 특정 신격이 지형창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우리의 여성거인이 조물주의 명을 받아 지형을 새로 형성시키는 모습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러 자료에서 창조주의 명을 받아 지형을 형성시키고자 했으나 금기를 어기거나 실수로 원했던 지형을 온전히 완성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여 창조신화적 면모를 잃어버린 형태 곧 희화화된 양상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지형 형성이라는 목적을 수행하는 창조신적 행위와 면모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위에서 든 자료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 가. <천지왕본풀이>
- 나. <설문대할망>
- 다. <옥계천의 진주석>

25) <옥계천의 진주석>, 임석재전집12 『한국구전설화』(경북편), 평민사, 1993, 24쪽.

자료 가)는 창세신화의 하나로 우주창조 신화적 면모를 잘 보여준다. 창조거인신에 의해 천지가 분리되고, 그 분리 후 산과 물들이 만들어지고 자리잡는 과정, 해와 달, 별 등의 천체 생성 및 복수 일월의 조정 등이 잘 드러나 있어 우주창조신화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지만, 그 과정의 하나로 진행되는 지형 형성 부분이 창조거인신에 의한 행위인지는 불분명하여 그 성격이 약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육지의 <창세가>에는 아예 지형창조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료 나)는 세상이 처음 생겨날 때 여성거인이 하늘과 땅을 분리시키고 제주섬을 형성시키는 것과 같은 지형창조 작업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우주창조 작업 속에 지형 형성이 포함되어 함께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우주창조 신화적 면모를 온전히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곧 우주창조신화의 구성 요소를 비교적 온전히 갖춘 자료로서, 지형창조 신화로서의 온전한 기능과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는 자료 형태인 것이다. 오키나와의 지형창조신인 아만추 같은 경우도 하늘과 땅을 분리하는 존재로도 나타나 나)와 같은 형태라고 할 수 있다.²⁶⁾

자료 다)는 천지 분리나 일월의 생성과 같은 우주창조 작업과 무관하게 지형을 형성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것은 지형창조 거인신과는 별개로 우주창조를 총괄하는 창조주가 있고, 그 명령에 따라 지형을 형성시키는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창조주를 돕는 부신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복수의 창조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다)는 전승과정상의 창조거인신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생겨난 변이 또는 파편화된 형태로서 우주창조신화에서 지형창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분만이 독립되어 나타났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자료 층위들을 염두에 두고 전체적으로 조망해볼 때 우주창조신화와의 연계성 속에서 거인신격에 의한 지형창조가 나타났을 가능성은 다각도에서 확인된다. 물론 확실하게 어떻다는 것을 논증하기는 쉽지 않

26) 우리나라 자료 사례는 아니지만 이런 성격과 관련 동일한 자료적 양상을 보이는 것을 오키나와의 창조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곧 여러 지형을 형성시키는 창조거인신 아만추는 태초에 하늘과 땅이 붙어있던 것을 분리시키는 우주창조신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정진희, 『오키나와의 옛이야기』, 보고서, 2013, 76쪽)

다. 다만 이 상황에서는 이들 자료들을 조합하고 정리하여 다음 세 가지 각도로 추정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가. 창세신 스스로 우주창조 작업 일환으로 지형창조 행위까지 수행했으나 그 부분이 약화 또는 탈락되었을 가능성
- 나. 설문대할망과 같은 거인 신격 스스로가 우주창조신의 역할까지를 수행했으나 후대로 전승되면서 변모되어 <설문대할망> 자료와 같이 지역적으로 한정시키고 지형 형성에 초점을 맞추는 형태로 변형되었을 가능성.
- 다. 본래 우주창조작업을 총괄하던 창조신 부분은 탈락된 채 창세신을 돕는 부신적 성격의 존재에 의한 지형창조만 남았을 가능성

이런 세 가지 가능성은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가)와 나), 다)의 간격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가)는 는 무속신화이면서 지형창조 이외의 우주창조신화적 성격이 강한 반면, 나)와 다)는 일반인의 입을 통해 전승되며 내용도 일부 자료에 국한해 천지분리가 있거나 막연한 별도의 창조신이 있다는 설정을 하는 형태로, 전승환경은 물론 담고 있는 지형창조 신화적 성격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간격을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위의 세 가지 자료 형태와 가능성을 갖고 본다면 전승과정상 탈락 또는 파편화된 형태로 파악할 수 있지만 둘의 교섭관계나 넘나드는 양상까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는 지형창조의 면모가 남아있는 위의 <천지왕본풀이>나 <설문대할망> 자료는 제주도에만 한정해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 자료 전반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점은 육지보다는 제주도가 무속신화나 설화 편수가 다양하게 전승될 뿐 아니라 고행의 신화 형태도 많이 잔존하고 있는 까닭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나 이 부분 또한 향후 구체적인 논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몇몇 외국 우주정돈형의 자료 사례는 이러한 우리 지형창조신화가 우주창조신화적 성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참고할 자료로는 필리핀 부깃는 창조신화와 북극해안의 처키 창조신화 등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

태초에 반평(Banting)이라고 불리는 강한 빛의 작은 구체(求體)에 선신(善神)인 디와타 나 막바바이(Diwata na Magbabaya ; 뛰어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착한 신)와 침을 흘리는 머리 10개를 가진 악신(惡神)인 다단하얀 나 수가이(Dadhanhayan na Sugay : 허락을 구해야 하는 신), 그리고 이 두신을 지탱하고 있는 독수리 모양의 머리에 힘 있는 날개를 지니고 인간 몸을 한 신악파야분(Agrtayabun ; 중재자)이 있었다. 어느 날 선신이 반평을 넓히고 하늘의 반평을 고정하기 위해 땅을 창조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악파야분에게 악신이 있는 자리 아래에서 흙을 떠 오게 하고, 이것으로 땅을 만들고자 설득하여 이 세상에 땅이 생겨났다. 하지만 땅이 곧 건조해지자 악신에게 침을 떨어뜨리도록 하여 큰 비가 내려 땅에 물이 넘치게 되었고, 비가 그치자 산과 언덕, 계곡, 평야, 협곡이 생겨났다. 그리고 물이 충분히 남아 시내와 강을 이루었고, 바다라는 큰 구멍으로 흘러들었으며, 풍성한 목초와 나무, 꽃들이 땅 위에 피어나게 되었다.²⁷⁾

필리핀 부깃는 창조신화는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는 과정에서 지형 형성이 이루어지는 신화임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우리의 지형 창조신화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첫째, 세상이 처음 생겨나는 우주창생신화가 분명함에도 그 초점이 지형 형성에 맞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곧 우주창조의 한 과정으로 지형 창조가 이루어지는 양상인데, 그 무게 중심이 지형 형성으로 이동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우주창조 작업이 축소되고 특정 지형의 형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짜여진 형태인 나의 <설문대할망> 자료와도 성격을 같이하는 양상이다.

둘째는 지형 형성에 있어 신이 10개의 머리에서 뱀은 침으로부터 각기 형상을 갖추고 세상에 펼쳐지면서 산과 강, 평야, 바다 등으로 변모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곧 배설물에 의해 지형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의 지형창조 거인설화에서 가장 흔한 모습 중 하나가 거인신격의 배설에 의한 지형창조라고 할 수 있는데,²⁸⁾ 이 자료를 통해본다면 우주창생의 일환으로 지형 형성이 이루어지는 창조신화에서도 또한 배설에 의한 지형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27) 김민정, 「필리핀 창조신화의 주요 모티프」, 『세계신화의 이해』, 소화, 2009, 161-162쪽 요약.

28) 권태효, 『한국의 거인설화』, 역락, 2002, 85-91쪽.

셋째는 창조의 중심신인 디와따 나 막바비야의 말을 따라 그 부신격(副神格)의 신인 다단하얀 나 수가이가 지형창조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구상은 창조의 주체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부신격(副神格)의 신인 다단하얀 나 수가이는 그 자신이 의도했던 것은 아니긴 하지만, 이런 점 또한 우리의 지형 형성 거인설화와 상관되는 양상이다. 곧 조물주의 명을 받아 마고할미 등이 지형을 형성시키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특히 의도한 바가 아닌 우연한 행위에 의해서 지형이 창조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²⁹⁾

이와 같은 필리핀 부킷논 창조신화를 참고삼아 볼 때 우리의 지형창조 거인설화에서 배설물에 의한 창조로 희화화된 점, 의도되지 않은 창조작업이기에 신화적 성격이 약화된 형태임이 지적됐으나 이 자료를 통해 본다면 반드시 그런 측면만은 아니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겠다.

한편 세상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배설물로부터 지형을 형성시키는 자료는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의 북극 해안에 사는 원주민인 처키 창조신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다. 태초에 창조신인 라벤의 부인이 세상을 창조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 무관심하던 라벤이 갑자기 땅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듣고 날아다니면서 똥을 누고 오줌을 싸서 산과 계곡, 강, 바다, 호수 등을 만들었다고 한다.³⁰⁾

이렇듯 필리핀 부킷논 창조신화와 처키 창조신화 자료는 우주창조 작업과 더불어 지형창조 작업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자료로서,

29) 지형 형성이 이 세상이 처음 생겨나는 우주창조신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면서 창조신의 창조작업을 돕는 부신이 지형을 창조하는 주체가 되는 모습으로는 나이 지리아 배낭 요루바족의 창조신화 또한 지형창조가 우주기원으로 연결되는데 이해에 도움이 된다. 이 신화에서는 처음 세상 창조시에 하늘과 바다만이 있어 단조로워 하늘의 신 울로룬의 허락을 받은 오바탈라신이 가장 현명한 신 오론밀라의 도움으로 모래가 든 달팽이와 흰 암탉 등을 얻어 그 닭이 달팽이껍질에 담긴 모래를 사방으로 흩었고, 흰암탉의 부릿깃으로 산들이 솟아오르고 계곡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곧 지형을 창조하는 거인신격은 인간이 아닌 동물로 설정된 양상이다. 어떻게 창조과정에서 최고신의 명을 받아 처음으로 거신적 존재에 의해 지형을 형성시키는 양상은 확인할 수 있다.(브누아 레스, 남윤지 역,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문학동네, 2008, 160-162쪽)

30) 데이비드 리밍, 박수현 역, 『신화』, 이소출판사, 2004, 43-45쪽.

특히 지형 형성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점, 배설물에 의한 지형창조인 점, 창조신과 별도로 부신적 역할을 하는 존재에 의해 지형창조가 이루어진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어 특히 나)와 다)로 제시한 가능성에 참고가 될 만하다. 우주창조신화에서 지형창조 위주로 전이 또는 중심 이동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지형창조신화 자료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창세가>나 <천지왕본풀이> 등 우주창조신화적 성격의 자료가 곳이라는 무속 의례를 통해 전승되면서 우주기원신화로서의 면모를 간직한 가운데 지형창조가 탈락되었는지, 혹은 원래 없었는지는 뚜렷하게 확인할 길이 없다. 그렇지만 일반인의 입을 통해 전승되는 지형창조신화에서 우주창조신화적 면모를 찾는 것은 <설문대할망>과 같은 구체적인 자료 사례가 있을 뿐 아니라 전승과정상 지형창조 중심으로의 변이 또는 지형창조 작업 위주로 탈락되면서 현재에 전해지고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은 여러 모로 파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우리 신화에서 우주창조와 지형창조가 서로 별도의 신화에서 별개의 형태로 전승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이런 이해를 위해 우리 자료를 찾고 면밀하게 살피는 것과 더불어 같은 성격의 외국의 자료 사례를 참고삼아 이해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IV. 마무리

이 글은 우리의 지형창조 거인설화에 대해 연구가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하고자 마련한 글이다. 특히 외국의 지형창조 신화의 사례를 볼 때 지형창조 거인설화가 우주기원신화와 연결되는 양상을 보임에도 우리 자료는 그저 별개의 성격으로만 이해하고 말았었는데, 그 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면서 우주창조신화와 연계되어 지형창조가 이루어졌을 여러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면 이 글에서 밝힐 수 있었던 바를 정리하면서 향후 연구 방향성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이 글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전승되는 우주창조 작업과 연계 양

상을 보이는 지형창조신화 자료들을 모아 그 양상을 정리하였다. 지형창조의 자료 양상을 크게 사체화생형과 우주정돈형으로 구분하였다. 사체화생형으로는 메소포타미아의 아카드지역의 우주기원신화 등 6편을 제시하면서 그 특징으로 1) 지형창조가 우주창조와 결합, 2) 원초적인 혼돈으로부터 천지 분리, 천체의 생성, 자연현상의 생성, 지형의 창조 등의 요소로 구성 3) 창조신의 신체 생김새를 우주 및 자연, 지형 모양과 연관지어 형상화시킨다는 점 등의 특징을 지적하였으며, 이런 사체화생형의 자료 양상은 우리의 지형창조신화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우주정돈형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중국소수민족의 창세서사시인 <중부묘족고>와 <러어터이> 등의 자료를 소개하면서 1)지형창조가 우주창조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점, 2)여러 신들이 참여해 산과 강, 들 등 각기 역할을 분담해 지형을 함께 창조한다는 점, 3)지형창조가 거인신격의 막연한 창조행위이기보다는 산, 강, 토지, 밭 등 생활 환경을 염두에 둔 구체적인 지형 형성이라는 점 4)지형 형성이 문화 창조와 연계성 속에서 전개된다는 점 등이 특징이며, 그 전승과정상 다듬어진 자료적 측면이 있음과 이런 우주정돈형 지형창조신화적 면모가 우리의 지형창조신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는 우리 자료를 중심으로 우주창조와 연계해 지형창조 작업이 있는가를 살피고자 했다. 곧 1)우주창조의 거인신에게 지형창조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가? 2)지형형성의 거인신들에게 우주창조의 면모는 있는가? 하는 두 가지 의문을 중심으로 <천지왕본풀이>, <설문대할망>, <옥계천의 진주석> 등 그 관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세 가지 자료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첫째, 창세신 스스로 우주창조 작업 일환으로 지형창조 행위까지 수행했으나 그 부분이 약화 또는 탈락되었을 가능성, 둘째, 설문대할망과 같은 거인 신격 스스로가 우주창조신의 역할까지를 수행했으나 후대로 전승되면서 변모되어 <설문대할망> 자료와 같이 지역적으로 한정시키고 지형형성에 초점을 맞추는 형태로 변형되었을 가능성, 셋째, 본래 우주창조 작업을 총괄하던 창조신 부분은 탈락된 채 창세신을 돕는 부신적 성격의 존재에 의한 지형창조만 남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천지왕본풀이>와 <설문대할망>과 같은 지형창조가 연관되는 구체적인 자료 사례가 있으며, 필리핀의 부깃는 창조

신화와 같은 자료를 참고하더라도 우리의 지형창조신화가 본래 우주창조 작업의 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던 데에서 전승과정상 지형창조 중심으로의 변이 또는 지형창조 작업이 탈락되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실상 지형창조신화는 세계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수집 및 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기에 우주창조의 과정으로서 지형 형성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우리의 자료에서 지형창조는 지금껏 우주창조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중국 서남부 소수민족 창조신화나 필리핀, 아프리카 등지의 창조신화 등 많은 신화에서 우주창조 작업의 한 과정으로 지형창조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그 연계성이 뚜렷해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그렇기에 여기서 다루고 있는 지형창조의 신화적 양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화소에 대한 모티프에 대해 세계 곳곳에 전승되는 신화적 사례를 수집하고 그것이 지닌 의미와 대비하면서 좀 더 폭넓은 이해와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드러난 현상 이면에 감춰진 신화적 실상이나 모호했던 점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것이다.

한편 이 글에서는 무가로 전승되는 창세신화와 일반인의 입을 통해 구비 전승되는 지형창조신화가 그 내용이나 형태상 간격이 있어 그 자료 관계를 어떻게 연결시켜 이해할지와 우주창조신화 속에 지형 형성이 이루어지는 양상이 제주도 지역으로 한정되어 나타나는 까닭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이 향후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구비문학대계』9-2(제주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강진옥, 「<마고할미>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 25집, 한국민속학회, 1993.
- 권태효, 『한국의 거인설화』, 역락, 2002.
- 권태효, 「여성거인설화의 자료 존재양상과 성격」, 『탐라문화』 37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0.
- 김민정, 「필리핀 창조신화의 주요 모티프」, 『세계신화의 이해』, 소화, 2009.
- 김선자, 『중국소수민족 신화기행』, 안티구스, 2009.
- 김영경, 「거인형 설화의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0.
- 김인희, 「거녀설화의 구조와 기능」, 중앙대 석사논문, 1994.
-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 김현선, 「창조신화 연구서설」, 『세계의 창조신화』, 동방미디어, 2001.
- 김형준, 『인도신화』, 청아출판사, 1994.
- 김혜정, 「한국 마고의 전승 양상과 신적 성격」,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13. 12.
- 손진태, 『조선신가유편』, 향토문화사, 1930.
- 손진태, 김현선 외 역, 『한국 민화에 대하여』, 역락, 2000.
- 송화섭, 「한국의 마고할미 고찰」, 『역사민속학』 17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7.
- 안인희, 『북유럽신화1』, 웅진지식하우스, 2007.
- 임동권, 「선문대할망설화고」, 『한국민속논고』, 집문당, 1984.
- 임석재, 임석재전집12 『한국구전설화』(경북편), 평민사, 1993.
-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 정진희, 『오키나와의 옛이야기』, 보고사, 2013.
- 조현설, 『마고할미 신화연구』, 민속원, 2013.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허남춘, 「설문대할망과 여성신화」, 『탐라문화』 42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3. 2.
- 현승환, 「설문대할망 설화 재고」, 『영주어문』 24, 영주어문학회, 2012.

- 袁珂, 전인초 외 역, 『중국신화전설』 I, 민음사, 1992.
大林太良, 권태효 외 역, 『신화학입문』, 새문사, 2003.
데이비드 리밍, 박수현 역, 『신화』, 이소출판사, 2004.
브누아 레스, 남윤지 역,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문학동네, 2008.
Karl A. toubé, 이응균 외 역, 『아즈텍과 마야신화』, 범우사, 1998.
馮元蔚 외, 『涼山彝文資料選譯(1) - <勒俄特衣>』, 西南民族學院, 1978.
潘定智 편, <中部苗族古歌>, 『苗族古歌』, 貴州人民出版社, 1997.

Abstract

Characteristic and Essence of the giant myth in topography creation

Kwon Tae-hyo*

This paper mainly focus on supplement in research of the giant myth in topography creation. Until recently the creation of the universe and the topography myths were separately understood as god creating universe and giants in topography creation. However the example research made in other countries show that the giant myths are more in relation with the creation of the universe. Therefor there needs to be an interest in study of our myth and see any relations between the two.

So this paper gathers passed on myths from all parts of the world and divide them into the type that coming into being world from the carcass and the type of universe orderly categories. However type that coming into being world from the carcass does not appear in our topography myth, therefor decided to extend the myth to the universe orderly <Jungbumyojokgoga> and <Reouhteoi> and seek for understanding.

Especially 1) Is there any universe creation trace in our giant myth? 2) Is there any giant myth trace in our universe creation? based on these two questions and the traditional literature of <Cheonjiwanghonpuli>, <Seoulmundaehalmang> and <Okgue river's pearl rock>, when finding answers. Also the paper is detailed as following. First, the possibility of omission in the creation god's work of topographic creation. Second, the possibility of the giant of topography myth to be

*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deformed and reduced during the transmission. Third, the possibility of drop out in the universe creation yet minimized topographic myth and the action to be more supporting than leading.

Key Words : the giant myth, myth in topography creation, type that coming into being world from the carcass, the type of universe orderly categories, Seoulmundaehalmang

교신 : 권태효 110-820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E-mail : 032918@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4. 04. 29.

심사완료일 2014. 06. 20.

게재확정일 2014. 06. 25.